

‘파격’의 광주... 개막 축포 쏘았다



광주FC이희균이 지난 2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K리그1 FC서울과의 홈 개막전에서 전반 14분 선제골을 터뜨린 후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광주FC 제공>

광주FC, 링가드 데뷔 서울FC戰 2대0 완승

이희균 ‘선제골’·가브리엘 ‘데뷔골’...만석 홈팬 열광 안혁주 선발 ‘이정효 축구’ 진가, 울시즌도 돌풍 예고

프로축구 K리그1 광주FC가 홈 개막전에서 FC서울을 꺾고 울시즌에도 돌풍을 예고했다.

광주는 지난 2일 광주축구전용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4 1라운드 홈 경기에서 이희균과 가브리엘의 연속 골을 앞세워 2-0으로 승리했다.

미디어데이에서 ‘상식밖의 생각으

로 FC서울전에 나서겠다’던 이정효 감독은 이날 외국인 선수를 빼고 광주 U-18 급호고 출신 2004년생 안혁주를 원어로 포진하는 ‘이정효 축구’의 파격을 선보였다.

안혁주는 경기 시작 6분 만에 문전에서 과감한 슈팅으로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경기장을 가득 메운 홈팬들의 뜨거운 응원을 앞세워 맹공에 나선 광주는 전반 14분 선제골을 터뜨렸다.

오른쪽 후방 측면에서 빠른 속공으

로 패널리지역으로 전진한 광주는 이 건희가 수비수를 제치고 내준 공을 이희균이 날카로운 오른발 슈팅으로 연결, 서울의 골망을 흔들었다.

광주는 조직적 압박과 빠른 공수 전환으로 전반에만 슈팅 8개, 유효슈팅 4개를 퍼부으며 팬들을 열광케했다.

후반 서울이 김경민, 일류첸코를 투입했지만 광주는 지치지 않는 압박으로 대응, 소강상태가 이어졌다.

답답한 흐름을 이어가던 서울이 후반 31분 역대급 외국인 선수 링가드를 투입, 반전을 노렸다.

교체 출전으로 K리그에 데뷔한 링가드는 투입 직후 패널리타크 뒤편에서 원발 슈팅을 날렸으나 골대를 훌쩍 넘겼다.

광주 특유의 밀집 수비에 공공 무인 링가드는 별다른 활약을 펼치지 못했

고, 후반 추가시간 역습을 시도하던 오 후성에게 깊은 태클을 시도해 K리그에서 자신의 ‘1호 옐로카드’를 받기도 했다.

1대0으로 앞선 상황에서도 쉽사리 공격을 펼친 광주가 추가골에 성공했다. 경기 종료 직전 코너킥 상황에서 광주의 새 외국인 선수 가브리엘이 침착하게 골문으로 밀어 넣어 K리그 데뷔골을 신고했고, 광주는 2-0으로 경기를 매조지었다.

개막 축포를 쏘아올린 광주는 오는 10일 강원FC를 홈으로 불러 연승에 나선다.

한편, 예매 시작 2분30초 만에 티켓이 매진된 이날 경기에는 7천805명의 팬들이 입장, 2018년 유료 관중 집계를 시작한 이후 광주 홈 개막전 최대 관중을 기록했다. /박희중기자



3일 열린 덴버 너기츠와의 경기에서 NBA 사상 최초 4만 득점을 돌파한 LA 레이커스 르브론 제임스. /USA TODAY Sports=연합뉴스

‘킹’ 르브론 제임스 NBA 최초 4만점 돌파

미국프로농구(NBA)의 ‘킹’ 르브론 제임스(미국)가 사상 최초로 정규리그 4만 득점 금자탑을 쌓았다.

LA 레이커스 소속인 제임스는 3일 열린 2023-2024 NBA 정규리그 덴버 너기츠와 홈 경기에서 2쿼터 초반까지 9점을 넣어 NBA 사상 최초로 정규리그 4만 득점을 돌파했다.

이 경기 전까지 3만9천901점을 넣어 4만 득점 돌파에 9점을 남겨둔 제임스는 2쿼터 1분 21초 만에 레이업 득점으로 4만 득점을 찍었다.

이날 경기에서 제임스는 26점, 9アシ스트를 기록하며 자신의 정규리그 통산 득점을 4만17점으로 늘렸으나 팀은 덴버에 114-124로 졌다.

제임스는 지난 시즌 도중 카림 압둘 자바가 보유한 정규리그 최다 득점 3만8천387점을 넘어섰고, 올해 4만 득점 고지까지 밟았다.

1946년 출범한 NBA에서는 3만 득점을 넘긴 선수도 제임스와 압둘 자바를 포함해 7명이 전부다. 이중 현역 선수는 제임스가 유일하다. /연합뉴스

‘캡틴’ 손흥민, 아시안컵 아픔 날린 시즌 13호골 터졌다



토트넘의 손흥민이 3일 영국 런던 토트넘 홉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2023-2024 EPL 27라운드 홈 경기에서 팀이 2-1로 앞선 후반 43분 쐐기골을 터뜨린 후 포효하고 있다. 이번 시즌 13호 골이자 올해 1월1일 열린 본머스와의 경기 이후 두달 만에 터진 값진 골이다. 한편, 손흥민은 홈 경기를 마치고 구단 미디어와의 인터뷰에서 ‘아시안컵에서 돌아와 다시 골을 넣어 무척 기쁘다. 팬들이 환호하는 모습을 보니 더 좋다’고 소감을 밝혔다. /AP=연합뉴스

황희찬, 햄스트링 부상 ‘6주 이탈’ 월드컵 예선 태국戰 출전 불투명

국가대표 공격수 황희찬(울버햄프턴)이 이번 달 치를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에 나서지 못할 걸로 보인다. 햄스트링(허벅지 뒤 근육)을 다쳐 6주간 뛰지 못하게 돼서다.

울버햄프턴의 계리 오닐 감독은 3일 열린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2023-2024 EPL 27라운드 원정 경기를 마치고 황희찬의 상태를 전했다.

오닐 감독은 “황희찬이 회복할 때까지 6주가 걸릴 것 같다. 지금 시점에서 우리에게서 재앙과 같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황희찬은 지난달 29일 브라이턴 앤드 호브 앨비언과 잉글랜드축구협회(FA) 컵 16강 홈 경기에서 햄스트링을 다쳤다.

오늘 감독이 밝힌 회복 기간을 부상 직후부터 집계하더라도 황희찬의 이달 내 복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황희찬은 다음 달 중순은 돼야 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이날 21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 26일 오후 9시 30분 태국 방콕 라자망가람 경기장에서 열리는 태국과의 북중미 월드컵 예선 2연전에 나설 수 없다.

황희찬의 이탈로 국가대표팀 임시 사령관에 부임한 황선홍 감독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KIA, 다문화가족 주말 체험캠프 성료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주말 야구체험 캠프를 성공리에 마무리했다. (사진)

1박 2일로 다섯 차례 진행된 이번 캠프는 총 28명의 광주·전남 지역 다문화 가정 중고등학생이 참가했다.

참가자는 주차 별 프로그램에 따라 체력 훈련과 주루 플레이, 배팅 훈련, 수비 연습 등의 기술 훈련을 받고 마지

막 5주차에 자체 흥행전을 진행했다. 훈련 도중에는 미니게임 등을 진행하며 참가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캠프 2주차에는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최희섭 코치의 팬 사인회가 열렸다.

KIA 타이거즈 관계자는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전체적으로 높았다. 이런 뜻 깊은 자리에 더 많은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매년 행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홍철기자



광주도시공사 정현화가 지난 2일 열린 부산시설공단과의 경기에서 회심의 강투를 시도하고 있다. <한국핸드볼연맹 제공>

부산시설공단 제물 삼아 광주도시공사 연패 탈출

‘9골 수훈’ 김지현, 경기 MVP

광주도시공사가 부산시설공단을 꺾고 2연패에서 벗어났다.

광주도시공사는 지난 2일 열린 신한 2023-2024 핸드볼 H리그 여자부 2라운드 7차전에서 부산시설공단을 23-21로 이겼다.

2연패에서 탈출한 광주도시공사는 5승 1무 8패, 승점 11점으로 5위로 올라서며 재도약의 기틀을 다졌다.

전반은 팽팽했다.

김지현의 날카로운 공격을 앞세운 광주도시공사와 측면에서 활발하게 움직인 부산시설공단이 1골씩 주고받으며 어느 한 팀이 치고 나가지 못했다. 결국 11-11 팽팽한 가운데 전반을 마쳤다.

후반 들어 부산시설공단의 실책을

트타 광주도시공사가 빠르게 3골을 넣으면서 15-12로 달아났다. 광주도시공사의 수비가 효과를 거두면서 부산시설공단의 골이 쉽게 나오지 않았다.

앞서가던 광주도시공사가 2분간 퇴장의 악재로 한때 19-19 동점을 허용했다. 하지만 골키퍼 박조은의 잇따른 선방으로 다시 21-19로 달아났다. 2분여가 남은 상황에서 광주도시공사 김금정이 2분간 퇴장당하면서 기회가 찾아왔지만 박조은의 골키퍼가 조아나의 오버슛을 잡아내면서 승기를 잡아 23-21로 승리를 거뒀다.

광주도시공사는 김지현이 9골, 서아루가 6골을 넣으며 공격을 주도했고, 박조은 골키퍼가 10개의 세이브를 기록했다. 6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한 정현화가 통산 200어시스트를 달성했다. /박희중기자

피겨 서민규, 한국 남자 최초 주니어 세계선수권 ‘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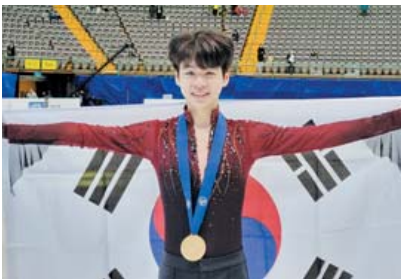
피겨스케이팅 남자 싱글 셋별 서민규(15·경신고 입학예정)가 한국 남자 선수 최초로 주니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차지했다.

서민규는 2일 대만 타이베이 아레나에서 열린 2024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 주니어 세계선수권대회 남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기술점수(TES) 73.45점, 예술점수(PCS) 76.72점, 합계 150.17점을 받았다.

그는 쇼트프로그램 80.58점을 합한 최종 총점 230.75점으로 2위 나카타리 오(일본·229.31점)를 1.44점 차이로 제치고 우승했다.

한국 선수가 주니어 세계선수권대회 남자 싱글 시상대에 오른 건 처음이다. 남녀 선수를 통틀어도 이 대회 우승을 차지한 건 2006년 김연아(은퇴) 이후 18년 만이다.

한국 남자 싱글 간판 차준환(고려대)도 주니어 세계선수권대회에 선메달은 획득하지 못했다. /연합뉴스



서민규가 지난 2일 열린 2024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 주니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한 뒤 금메달을 목에 걸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울렷스포츠 제공>